



###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 <59> 헛된 이름과 잇속을 탐하는 어리석음

몇 년 전 어떤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덕이 높은 스님들과 앞으로 세상에서 이름을 빛낼 젊은 스님들이 많이 모여 축복된 그 날을 잊지 않으려고 기념사진을 찍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출가한 사람으로서 사진을 찍어 자취를 남긴다는 일이 어쩐지 낯설고 떨렸었다. 공부 부족한 나한테는 정말 본에 넘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한쪽 쪽으로 비껴나려는 데 어떤 스님이 나를 불러 세웠다. "스님, 어서 빨리 오세요. 지금 세상은 자기 피알 사대요. 젊잖게 뒤로 빠진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이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선가귀감> 59장에서 말한다.

하여 서산 스님은 시(詩)로 말한다.  
하늘 멀리 가리기 날아갔는데 / 모래 위 발자취만 남아있구나  
저승으로 사람들 가고 있는데 / 쓸모 없는 이름만 집에 남도다.  
[鵬飛天未遯沙人去黃泉名在家]

이 세상 모든 것은 세월 속에서 늘 변하는 것이므로 영원할 것이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 인연이 모이면 생겨났다 인연이 흩어지면 없어지므로

#### 중생의 업에는 욕망이 깔려있고 욕망 부리면 부릴수록 커져 업화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貪世淨名 枉功勞形 難求世利 業火加薪

세상의 헛된 이름을 탐하는 것은 공력(功力)을 잘못 들여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것이요, 세상의 잇속을 찾아가는 것은 '불길처럼 타오르는 중생의 업(業火)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다.

'헛된 이름'으로 번역한 '부명(浮名)'은 실제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부풀려서 말해지는 허황된 명성을 말한다. 세속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하고,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해지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한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와 같은 세상의 이름들은 허공의 뜬구름 같이 곧 흩어질 헛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나의 몸이 없어진 뒤 헛된 이름만 이 세상에 남아 있으면 나에게 무슨 보람이 될 수 있겠는가? 세상의 헛된 이름을 탐하는 어리석음에 대

영원불멸할 실체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조차 덧없는 세월 속에서는 '성주괴공(成住壞空)'의 과정을 거쳐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이 세상을 만든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四大)의 인연이 흩어지면 이 세상의 모습도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것인데 그 위에 떠도는 헛된 이름이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 이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큰 부위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려고 열심히 글자를 새기고 있는 모습을 길을 지나다가 보게 된 한 스님이 시(詩)를 읊조렸다.

물을 쪼아 제 이름을 깊이 새기니 / 어리석은 그 모습이 가소롭구나  
이 세상도 곧 사라질 거품 같은 것 / 그 이름이 얼마동안 보존될소냐.  
[鑄石題名字 山僧笑不休 天地一泡沫 能得幾時留]

물에 자기 이름을 새겨 후대에 보존하려는 이런 헛된 노력이 바로 '왕공노형(枉功勞形)'이다. '왕공(枉功)'은 공력(功力)을 잘못 들이는 것이다. '노형(勞形)'은 공력을 헛되이 잘못 쓰게 됨으로써 공부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이 몸과 마음만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헛된 이름을 탐하는 중생들의 어리석음은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중생의 무거운 업만 가중시킨다. 이것에 대하여 서산 스님은 "공력을 잘못 들여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업을 조각을 다듬고 조각하여 예술품을 만드는 것처럼 쓸데

없는데 자신의 기교와 솜씨를 다하는 것이다[枉功勞形者 鑿水彫刻 不用之巧也]"라고 말하였다.

'영구세리(營求世利)'는 '세상의 잇속[世利]'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인연을 맺어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營求]이다.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모두 펼치고 세상일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이 수행자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살아야 할 수행자들이 재물을 모아 부를 축적하고 명품이나 사 모으며 비단옷을 입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모습이 어떠하겠는가? 원효 스님은 <발심수행장>에서 "마음 닦는 사람들이 세상일에 욕심을 내는 것은 눈 푸른 수행자의 수치요, 출가한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은 세상 사람

들의 웃음거리이다[隨人貪 是行者羞恥 出家富 是君子所笑]"라고 말하였다.

출가자의 본분을 잊고 세상의 잇속을 찾다니며 헛되이 세월을 보낸 수행자들이 맞이하는 결말에 대하여 서산 스님은 시(詩)로써 "온갖 꽃을 찾다니며 애써 꿀을 모으지만 / 그 꿀맛을 맛볼 사람 마지마 그 누구일까? [營求世利者 有人詩云 採得百花成蜜後 不知辛苦爲誰甜]"라고 따끔하게 충고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명예, 이성(異性)에 대한 소유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집착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중생의 업이다. 이 업의 바탕에는 중생의 욕망이 들어 있다. 이 욕망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므로 '업화(業火)'라고 한다. 세상의 잇속을 찾다니는 것은 욕망의 불길이나, 욕망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 욕망의 불길은 커지기만 하여 중생의 업화(業火)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잇속을 찾다니는 것을 '업화(業火)가신(業火加薪)'이라고 한 것이다. '불길처럼 타오르는 중생의 업(業火)'에 '기름을 끼얹어 더 많은 고통을 가중시킨다[加薪]'고 말하는 것이다.

중생의 업은 좋은 물건, 아름다운 소리, 향기로운 냄새, 맛갈스러운 맛, 상큼한 느낌, 자신의 판단이 여섯 가지 경계에 집착하여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다. 여섯 가지 경계 곧 육경(六境)인 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 법(法)을 즐겨 색향(色香)이라 한다. 이것들이 중생이 살아가는 삶을 추하게 거칠고[粗] 나쁘게[難] 만들어가므로 추색향(麁弊色香)이라고 한 것이다. 서산 스님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좋은 물건과 향기로운 것들은 사실 불같은 욕망에 불을 활활 지피는 장작에 지나지 않으니 이를 탐하는 것은 불길처럼 타오르는 중생의 업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業火加薪者 麁弊色香 致火之具也]"라고 말하였다.

■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1>

#### 왜 상담심리학과 불교인가?

불교란 종교를 알기 쉽게 비유한다면 '바다'라고 할 수 있다. 그 바닷물을 표주박으로 떠 맛을 보면서 이 맛은 어떨고 저 맛은 어떨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또한 그 바닷물 한 바가지를 담아 이 물은 한강에서 왔고 저 물은 미시시피 강에서 온 거라고 구별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상담심리학' 그리고 '불교'를 함께 놓고 보니 불교란 망망대해 앞에 표주박을 들고 서 있는 느낌이 든다. 태평양 한 가운데서 손바닥에 물을 담고 이 물은 어디에

섰듯이 부처님이 설파하신 사성제는 의학 모델을 따르고 있는 오늘날의 상담심리학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담심리학과 불교는 형태와 내용과 실현 방식에서 유사점이 많다.

그러나 차이점도 많다. 현대 상담심리학에서 주요 상담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담자와 정동 불교의 교화 대상은 심리적 건강 상태에서 차이가 난다. 또한 상담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불교에서 추구하는 목표에서 차이가 나며, 상담 내용 역시 많이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교화 과정

#### 사성제는 오늘날 상담심리학과 일맥상통 상담과 교화라는 면에서는 많은 차이 있어

서 왔을까 하고 무모하게 추량하는 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긴다. 그러나 상담심리학이 바다 같이 무량한 불교를 이해하는 하나의 지류, 또 하나의 방편이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가져본다.

상담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진 길, 부처님이 하신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비록 부처님의 교화 과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와 비슷한 작업을 현대 상담가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불교의 기본 교리인 사성제가 상담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내담자의 괴로움을 함께 느끼고(苦聖諦) 그러한 괴로움이 일어난 원인을 파악하며(集聖諦), 오랜 경험과 전문성으로 그 괴로움을 없앨 수 있음을 알려(滅聖諦), 괴로움을 없애는 길을 함께 닦아간다(道聖諦).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대의왕이라고 일컬으

고 현대 상담가들이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에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다. 상담을 하는 주체인 상담자와 불교의 교조인 부처님의 인격적 성숙, 역량, 그리고 전문성에 서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 상담심리학과 불교를 여러 각도로 조망하면서, 상담심리학을 통해 불교에 새로이 접근하고, 또한 불교의 무한한 지혜와 무수한 방편을 현대 상담심리학에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약력** : 연세대 교육대학원에서 상담교육학 전공,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 박사과정.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1990년 정민서리소설 <저린 손끝>으로 등단. 장편소설 <저린 손끝> <어울림> <트라이앵글>, 수필집 <소설꽃>, 학술서적 <대의 상담> 등.



그림 : 문병성

###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 아수라(阿修羅)

3월 초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 '움'에서 '업(業)'을 주제로 한 난버벌 퍼포먼스 '카르마'를 선보였다. '카르마'는 자연의 흐름을 관장하는 5명의 남성과 6명의 여신이 탐욕의 신 '아수라'에 맞서 싸운다는 내용이다. 탐욕의 신 아수라를 둘러싼 투쟁과 응

징, 부활의 드라마를 통해 인도 신화에서 뽑아낸 주제는 인간존재의 보편적인 문제까지 말한다. 극중 탐욕의 신 '아수라'는 인도신화에서 선한 신들의 적이자 전쟁을 좋아하고 호전적인 신으로 등장한다. 천룡팔부중(天龍八部衆)의 하나이기도 하다. 천룡팔부는 불교에서 말하는 절을 수호하는 신중으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실제 사람은 아닌 귀신을 말한다. 천(天), 용(龍), 야차(夜叉), 건달바(乾達婆), 아수라(阿修羅), 가루라(迦樓羅), 긴나라(緊那羅), 마호라가(摩呼羅迦)이다. 아수라를 비롯한 이들 팔부중은 원래 인도 고대신화의 신으로 불교에 흡수된

신들이다. 불교에서 아수라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로 설 명되기도 한다. 육도(六道)의 하나에 아수라도(阿修羅道)를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아수라장이라는 말이 바로 아수라도를 설명하는 표현이다. 불상 조각에서 나타나는 아수라는 세 개의 얼굴과 여섯 개의 팔을 가진 삼면육비(三面六臂)의 형상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세 쌍의 손 가운데 하나는 합장을 하고 있으며 다른 둘은 각각 수정(水晶)과 도장(刀杖)을 든 모습으로 표현된다.

강지연 기자

### 눈만 보면 압니다 "관상과 氣 명상으로 앞날을 밝힌다"

귀의 삼보하우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린세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난나 세상과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운명을 사전에 알고 액운을 막고 가야 하는 것이다. 고해라고 불리는 이 동경 세상에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가없는 중생들을 위해 산승이 기도와 제를 올리고 범시술로 중생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번뇌에 의하여 업을 일으키고 업에 의하여 고통을 부른다. 번뇌와 업과 고통의 이 세가지는 같이 굴러서 한이없고 끝이 없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윤회라 한다.

- ◆ 곳을 해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을 봐도 답답하고 시원치 않는 분
- ◆ 집안에 우환이 끈이지 않고 부부자식간에 원적이 끼여 고통속에서 사시는 분
- ◆ 집터나 가게터에 재수가 안되고 이사매매가 막혀 궁핍하신 분
- ◆ 평생 제복과 관운이 없어 본인의 관상과 사주를 알고 싶으신 분

석가모니부처님도 인연없는 중생은 제도 못했답니다. 아직 인연이 닿지않는 분을 오셔서 모든 업장 다 소멸하시고 소원성취는 물론 무량공덕의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생들의 앞날을 스님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 171번지  
백련사 성진 합장 031)673-1087  
남·여 행사승 모집

### 글반명가 天一氣功

천일기공은 93년도에 창립되어 14년간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건강법을 전수 해 왔습니다. 소백산 수련원에서 실시하는 '3박4일코스 건강기공 강좌'에는 전국각지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꾸준히 참가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 독일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만성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요통, 좌골신경통, 관절통, 오십견, 견비통, 팔저림, 목디스크, 요실금, 코골이, 무호흡증, 수족냉증, 위장병, 비만, 불면증, 당뇨, 고혈압, 갑상선, 우울증, 초조불안, 두통, 안장다리, 생리불순, 생리통, 부인병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 소주천수련법, 임,독맥소통법, 천지관기법 등 다양한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 수승화강의 원리를 모르고 병치료를 논하지말라
- \* 사기(음기)를 배출하지않고 어떻게 병을 고치시렵니까?
- \* 전화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서울본원 (02)3436-3206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

### 퇴행성관절염·류마티스 신경통·오십견·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원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원(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이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관절원의 윤량원장은 수질내용 안 퇴행성관절염·류마티스·신경통·오십견·디스크 등의 환자와 인정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원(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원(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해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함액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 관신원을 드실 분
- 제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에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계암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인약원 상담문의 080-598-9832

### 간(肝)이 간지방간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울담과 비감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를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를 항아리에 넣고 왕겨 97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명숙에 묻어든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신미를 토종 (민속농원)